

2005 지방재정 세미나

축 사

오 영 교

(행정자치부장관)

존경하는 한국지방재정학회 운영진 회장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기안 이사장님, 김채용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님, 진의장 통영시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전국 각 지역에서 참석해 주신 지방의회 의원님, 학회 회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 지방재정전문가들이 『분권형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지방재정관계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을 등 우수한 인적자원과 최고의 IT기반, 수출 호조 등으로 세계 12대 무역대국의 지위에 있지만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95년이후 아직까지 1만불 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경기부진 등 대외적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위기대비에 소홀한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간 참여정부에서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국이 개성 있고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앙으로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15.0%에서 19.13%로 상향조정하였고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을 전면개정하여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예산편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지방

예산편성기본지침』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채발행도 건별 승인제에서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재정 운용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이루어지도록 선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재정정보를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재정공시제도,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예산·회계·재정정보의 디지털화를 위한 재정정보화 사업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선진 재정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지방재정의 지출가치(Value for money)는 저절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 계약감독제, 재해복구공사시 개산계약제도 도입 등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계약법을 제정하는 한편 공유재산·물품과 지방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지방기금법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이 가야할 길은 여전히 높고 험난합니다. 자주재원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하고, 극심한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자치단체의 책임성도 한 차원 더 높아져야 합니다.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과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스스로가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갈 때 지방의 성장잠재력도 극대화되고 지역사회가 생동감 있고 활기가 넘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산적인 지방재정의 현안과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발제되고 토론되는 내용 하나하나가 재정분권과제의 시행과정에서 소중한 지침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어느 새 15년째를 맞이하는 지방재정세미나가 분권형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의 입장에서 분권형 지방재정개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2005 지방재정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모쪼록 지방재정 가족 여러분들께서 한려해상공원의 꽃인 통영해안의 수려한 정취도 즐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7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오 영 교